

‘詩월, 목포를 문학에 품다’

내달 26일까지 목포문화제 박화성 문학페스티벌 개최 시화전·엽서쓰기 등 행사 다채

목포가 낳은 한국문단의 거봉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2016 목포문학제가 ‘詩월, 목포를 문학에 품다’를 주제로 다음달 26일까지 개최된다.

목포 문학관은 올해 3회째를 맞는 목포 청소년 문학상 시상식을 지난 21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청소년 백일장대회 입상자 19명과 시낭송대회 입상자 5명 등 24명에게 총 126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졌으며, 유달문학 3집 발간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 지난 22~23일에는 우리나라 여성 소설가로 최초의 장편소설을 집필한 박화성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제10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화성이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시절에 쓴 ‘고개를 넘으면’(1956)을 집중 분석한데 이어 박화성과 동시대를 산 김명순 탄생 120주년을 맞아 김명순 문학세계를 되짚어보는 뜻 깊은 기회를 마련했다.

오는 29일에는 김현 문학제가 열리고 다음달 25일까지 목포시 관내 학교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문학관’ 행사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야외 시화전, 엽서편지쓰기 등 다양한 문학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목포문학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을 선도해온 목포의 문학과 문학인들을 전국에 알리고 목포문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문학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아침밥 꼭 챙겨드세요”

목포시·여성단체협 바른 밥상 행사

목포시가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정애)와 공동으로 최근 정명여중·고와 유달중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바른 밥상’ 행사를 가졌다.

〈사진〉 성장기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여성단체회원 80여명, 박선미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등굣길에 주먹밥을 받아든 학생들은 “아침을 못 먹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엄마가 만든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이라 행복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서민 500여명에 일자리 지원

내년 2월까지 29억원 투입

목포시가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민의 고용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 정부 추경 공모사업에 참여해 최근 국비 20억4900만원 등 총 29억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직접일자리(공공근로형)사업으로 생계안정 도모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목포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 230명, 철도폐선 부지 활용공원 조성사업 20명, 시민과 함께하는 명물 숲

돌보미 사업 30명 등 17개 사업을 펼쳐 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대상자는 조선업 퇴직자를 비롯한 실직자 및 가족,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장기실직자 등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이다.

참여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동 사업장과 사업부서별 각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만 39세까지)는 주 40시간,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다.

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 지급되며, 월 차수당과 주차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박흥률 목포시장은 “조선업 실직자와 퇴직(예정)자들이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일어서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선업 실직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4개 초등학교에 과학관이 찾아갑니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내달 30일까지 운영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라권 해양과학문화 취약지역(전남 2개소, 전북 2개소) 4개곳을 대상으로 ‘2016 두드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을 국립광주과학관과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에 다양한 과학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과학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서 추진한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고흥초등학교(24~28일), 해남초등학교(11월 1~10일), 부안동초등학교(11월 14~18일), 고창초등학교(11월 21~30일)에서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총 4회(회당 5일 또는 10일) 30일간 운영한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계자는 “해양과학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해양과학문화 전시·과학교실·이동전체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과학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사회적기업 ‘클린하우징’ 사업 호평

독거노인 47세대 주거 정비

목포 사회적 기업들이 목포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클린하우징’ 서비스 사업이 타 지자체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클린 하우스’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목포 사회적기업인 (주)미향주거복지센터와 (유)사람과 사람, (주)유비예코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도비 6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남에선 유일하게 목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위생 등 주거환경이 취약

한 지역 독거노인 47세대를 각 동에서 추천받아 집수리전문 사회적기업인 ‘미향’은 도배와 장판교체를, 청소전문 사회적기업인 ‘사람과 사람’은 집 청소와 함께 소독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비예코’는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 사회적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모범적 모델”이라며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목포시의 클린하우징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도서지역 소통의 날’ 빛낸 만호동 풍물패

목포 만호동 풍물패가 10년이 넘도록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 꽃피는 유달산 축제, 목포항구축제 등 목포시 주요 행사에서 길놀이로 자리를 빛낸 만호동 풍물패(회장 강대동)는 지난 20일 2016 하반기 도서지역 소통의 날에서도 공연을 선보였다.

도서지역 소통의 날은 목포시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이동시청을 운영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불편사항 처리하는 날로, 만호동 풍물패



회원 10여명은 식전 공연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한편 11년째 만호동 주민센터 주민사랑방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풍물패는 목포 평생학습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제37회 남도국악제 농악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신세계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